

광양시 ‘예방부터 회복까지’ 시민 마음 건강 돌본다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사업 전개… ‘마음이 건강하게 잘 사는 건강환경’ 조성

광양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에서 고립감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 자살 예방 등을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치료, 회복과 일상 복귀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예방부터 회복까지’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올바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시민 대상 맞춤형 심리 지원과 정신건강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센터는 인터넷(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과하게 의존하는 어린이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버 연극봉사단과 함께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어린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동네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대상자 중 우울, 불안, 자살 시도 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개입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추진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고 있다.

센터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복귀와 정착을 위해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

개인별 욕구에 맞는 증상관리, 일상생활 관리, 사회적응 훈련, 응급 위기 중재 서비스 등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직장인 대상 교육, 지역 행사 및 유관기관 방문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시민의 정신적 안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센터는 자살 고위험 시기(3월~5월)에 대비해 마음 건강 걷기 쉼터지 운영, 자살 예방 현수막을 게시해 자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센터는 생명지킴이 양성 후에도 생명지킴이 앱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마인드 미션 등 이벤트를 실시해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서영옥 광양시 건강증진과장은 “고통받는 이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인적 자원을 활용해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겠다”며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시는 정신질환자도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형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양=조순익 기자

순천, 2년 연속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순천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5년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전국 2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분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16개 기관)를 선정·포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 △업체 점검률 △현장보고 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자체 부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순천시 식품위생과 챗봇’ 구축 및 위생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위생업소 영업주와 소통을 강화하고, 관내 위생업소에 대한 선제적 위생 점검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순천시 식품위생 영업주 및 위생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여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건강한 순천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보성다향대축제 판매 먹거리 시식회

가격·품질 점검… 민고 먹는 축제 기반 마련



보성군은 최근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 판매 먹거리 시식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식회는 축제장에서 판매될 음식의 가격 적정성과 품질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광객이 믿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식은 노정이 문화관광실장, 서상군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축제 먹거리 부스 1곳의 대표메뉴를 직접 맛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복돈가스, ▲복돈부리토, ▲최고기농차쌀국수, ▲쌀소

금빵, ▲꽃비빔밥, ▲다슬기비빔밥, ▲오븐구이치킨 등 부스별로 준비한 20여 가지 음식을 시식하며 맛과 양, 위생 상태, 가격 대비 만족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보성녹차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특색 있는 메뉴, 마을 공동체가 참여한 부스의 개성 있는 음식들이 높은 관심을 끌었다.

시식회 결과는 메뉴별로 정리돼 보성다향대축제 공식 홈페이지 및 현장 안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보성=장국도 기자

순천, 귀농귀촌 길잡이교육 프로그램 운영

6월 30일까지 이론교육·실습 통한 체계적 지원

순천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순천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길잡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 희망자와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이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한 종합적인 교육으로 참가자들에게 귀농귀촌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여 농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총 22회, 90시간에 걸쳐 순천시 혁

신농업인센터와 농가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귀농귀촌 이해를 시작으로 비옥한 토양 가꾸기부터 작물 선택, 농산물 가공과 유통 등 이론교육과 농기계 실습, 선도농가 방문, 선진지 견학 등 현장교육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신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교육 수료 후에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 기념행사 성료



곡성군이 지난 15일 죽곡면에 위치한 천년고찰 태안사에서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 기념식 및 산사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상래 곡성군수를 비롯해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주순선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 권항열·신장식 국회의원, 강덕구 곡성군의회의장, 태안사 주지 각초스님, 하임사 주지 덕문스님,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 등 약 700여 명이 참여했다.

기념식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

39호인 죽동농악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했다. 이어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태안사 주지 각초스님에게 ‘태안사 적인선사탑 국보 지정서’를 전달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무대에는 TV조선 ‘미스트롯3’ 출연자 농수로, ‘미스트롯’ 참가자 한수정, 무예 공연예술단 지무단, 퓨전국악팀 휘영청 등이 출연해 대중가요 전통음악, 무예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였다.

/곡성=홍경백 기자

광양, 아동권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수료식 개최

광양시는 중마동 와우LH 다함께돌봄센터에서 ‘2025년 아동권리교육 강사 양성 기본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기본과정 수료생 21명을 포함해 교육 강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광양시는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이번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기본과정은 지난 2일부터 총 10회차(25시간)로 진행됐으며, 21명이 수료했다. 아울러 올해는 기본과정뿐만 아니라 심화과정도 추가로 진행됐다.

심화과정은 6회차(15시간)로 구성돼 2023~2024년 수료생 중 16명이 이수했으며 지난 8일 수료식이 열렸다. 교육은 아동권리에 대한 기본 이해는 물론, 인권교육 훈련 활동 개발, 프로그램 설계, 인권교육 기획 및 시연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돼 현장 적용력을 강화했으며, 수강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아동과 지역 주민에게 아동권리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만큼, 수료생들은 향후 초등학교 및 아동 관련 시설에 파견돼 교육을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아동권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운영과 더불어 아동권리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구례 인재육성기금심의회

상반기 장학생 126명 선발

구례군은 지난 14일 인재육성기금심의회를 개최하여 2025년 상반기 인재육성장학생 126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예술, 체육, 기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인재 발굴·지원하기 위해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각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초등학교생 23명, 중학생 30명, 고등학교생 44명 등 총 97명을 선발했다.

대학생 분야에서는 성적 우수자 22명과 다자녀 가정 학생 7명 등 총 29명을 선발했다. 다문화 및 저소득층 분야에서도 모집이 이루어졌으나, 해당 분야에 지원자가 없어 배정 인원을 성적 우수 및 다자녀 분야로 조정해 선발 인원을 확대했다.

장학금은 대학생 최고 20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중학생 30만 원, 초등학교생 20만 원 이내에서 지급되며, 총 1억 933만 2천 원의 장학금이 4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1995년부터 운영해 온 인재육성기금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곡성, 민생활력지원금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특특’

소비 증가폭 99배 상승… 생활밀접 업종서 사용

곡성군이 지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역상품권(심청상품권) 형태로 지급한 민생활력지원금이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곡성군에 따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심청상품권 지급률은 95%이며 소비 증가 폭도 99배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3월 17일~4월 4일과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이후의 기간을 분석한 결과 상품권 환전 건수는

2261건에서 22만4932건으로 증가했다.

환전 금액은 2261만원에서 22억 4000만원으로 99배 늘었다.

심청상품권은 생활 밀접 업종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 환전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슈퍼마켓이었으며 주유소, 식당, 전통시장, 편의점, 약국, 커피전문점, 의류·생활용품 소매업 순이다.

구례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추진위원회 개최

구례군은 지난 15일 구례군청 상 황실에서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2025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박람회 추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추진위원회는 전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조남훈 교수를 위원장으로, 관련분야 교수, 기관·단체장, 농업협회장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박람회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구례에서 시작된 흙의 변화와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농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광양시의회, 개원 34주년 맞아 의정동우회원과 간담회



광양시의회의는 개원 34주년을 기념해 의정동우회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정복 의정동우회장을 비롯한 의정동우회원들과 최대원 의장을 포함한 제9대 의원들이 참석해, 지난 34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광양시의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개원 이후 변화와 발전을 함께 해온 선배 의원들의 경험과 조언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의정동우회원들은 지방자치의 성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조언했다.

서정복 의정동우회장은 “광양시의회가 지난 34년 동안 시민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의 의정활동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은 “선배 의원님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광양시의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광양시의 발전을 이끄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조순익 기자

순천,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 65개 대상 실시

순천시는 ‘2025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계획’에 따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3억 이상의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한 법인과 5년 이내 300만 원 이상 비과세와 감면을 받은 법인 중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다.

시는 지난 10일 지방세심의위원회 공정한 심의를 거쳐 65개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조사 방법과 기간을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나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